



18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08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전에서 대구FC 백영철(왼쪽)이 공중볼을 받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의 스테보를 기습으로 밀고 있다. 포항이 2-0으로 승리해 결승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포항·경남 “최강 가리자”

■FA컵 전국축구선수권 준결승

각각 대구·국민銀 꺾고 결승행
21일 오후 1시25분 패권 다툼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챔피언 포항 스틸러스와 경남 FC가 아마와 프로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2008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우승컵을 다툰다. 포항은 18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준결승에서 황재원의 페널티킥 골과 이광재의 헤딩골로 대구 FC를 2-0으로 꺾었다. 포항은 실업팀 강호 고양 국민은행의 돌풍을 5-0으로 잠재운 경남과 21일 오후 1시 25분 제주종합운동장에서 삼구 2역원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걸고 승부를 벌인다. 1996년 원년 대회 정상에 올랐던 포항은 지난해 전남 드래곤즈와 결승 대결에서 패하는 등 2001년과 2002년을 포함해 세 차례나 준우승에 머물러 12년 만의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포항은 스테보와 남궁도를 최전방에 배치했고 대구도 토종 최고의 골잡이 이근호와

부상에서 복귀한 외국인 스트라이커 예닝요를 투입으로 세워 맞불을 놔다. 양팀은 초반 탐색전을 펼치다 대구가 경기 시작 5분 예닝요의 프리킥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이후 공방에도 이렇다 할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시소게임을 이어갔다. 행운은 포항에 먼저 찾아왔다. 전반 42분 대구의 수비수 레안드로가 자기 진영 페널티지역에서 공을 걷어내려다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을 허용한 것. 키커로 나선 황재원은 오른쪽 인사이드 슈트로 왼쪽 골문을 출렁였다. 0-1로 뒤진 대구는 전반 추가시간 이근호의 강한 오른쪽 슈팅이 왼쪽 골대를 살짝 벗어나 아쉬움을 남겼다. 세르지오 파리아스 포항 감독은 체력이 떨어진 스테보와 남궁도를 빼고 노병준과 이광재를 투입했고 이광재가 후반 막판 쇄기골을 뽑았다. 포항은 후반 39분 최효진의 오른쪽 크로스를 이광재가 골지역 오른쪽에서 헤딩슛을 꽂으면서 골문을 뚫어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경남은 앞선 경기에서 네 골을 터뜨린 김동찬과 한 골을 사냥한 김종훈의 활약을 앞세워 '프로팀 천적' 국민은행을 5-0으로 대파하고 결승에 선착했다. 4골을 터뜨린 김동찬은 FA컵 6골을 기록해 2골을 사냥한 이근호와 예닝요(이상 대구)를 제치고 득점왕을 예약했다. 올해 정규리그 6강 플레이오프 티켓을 아깝게 놓쳤던 경남이 등록 선수가 14명뿐인 국민은행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일단 공격으로 국민은행의 골문을 두드린 경남이 전반 30분에 터진 김동찬의 선제골로 리드를 초반 주도권을 잡았다. 김동찬은 인디오의 오른쪽 프리킥을 김종훈이 살짝 밀어주자 왼쪽 골대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밀어 넣어 국민은행 골망을 흔들었다. 경남은 전반 37분 김종훈의 헤딩골로 2-0을 만들었고 선제골 주인공인 김동찬이 이후 세 골을 몰아넣는 원맨쇼를 펼쳤다. 김동찬은 전반 43분 왼쪽 측면을 돌파한 인디오의 팽볼 크로스를 받아 페널티지역 중앙에서 강한 오른쪽 슈팅으로 골문을 갈랐고 후반 4분에도 인디오의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골로 연결해 헤트트릭을 작성했다. 김동찬은 헤트트릭도 부족하지 후반 45분 왼쪽 페널티지역 외곽에서 상대 수비수의 공을 가로채 단독 돌파한 뒤 오른쪽으로 골문을 뚫어 5점차 대승의 마지막 조각을 맞췄다. /연합뉴스

K-리그 내년 경기일정 짜기 고민

‘홀수의 팀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내년부터 K-리그 ‘15구단 체제’ 출범을 앞두고 경기 일정을 짜는 데 깊은 고민에 빠졌다. 18일 출범한 신생팀 강원FC가 내년부터 리그에 참가하지만 올해까지 새로운 팀을 만들기로 했던 광주 상무가 창단에 실패하면서 15개 구단으로 리그를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단 정규리그는 올 시즌과 마찬가지로 주말 경기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지만 15개 팀이라 한 팀은 경기를 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올해 26경기보다 두 경기 많은 팀당 28경기를 치르는데 경기 일정이 한층 복잡하다. ‘무용론’이 제기됐던 컵대회 일정은 더욱 골치아픈데, 올해는 A, B조로 나눠 6개 팀씩 리그를 펼치고 나서 각조 1, 2위 팀이 아시아축구

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했던 2개 팀과 6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식이었지만 내년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K-리그의 AFC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네 장으로 늘어남에 따라 15개 팀 중 홀수인 11개 팀이 리그를 벌여야 한다. 이번 시즌처럼 두 개조로 나눠 편성하기가 쉽지 않다. 페지보다는 11개 팀이 주중에 풀리고 팀당 10경기를 치르고 나서 1, 2위 또는 4강 팀이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네 팀과 6강 또는 8강 플레이오프를 치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가 주관하는 FA컵 전국 축구선수권대회 일정 조정도 고민거리다. 축구협회는 아마추어와 프로가 참가해 최강자를 겨루는 대회인 만큼 내년부터 권위를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강원FC 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일동 전 프로연맹 사무총장도 지난달 이사회 때 “컵대회를 폐지했을 때 팀당 총 40경기 내외를 확보하려고 FA컵을 홈랜드 어웨이로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세를 보였다. 그러나 내년에는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이 2월11일 이란과 4차전부터 6월17일 이란과 홈경기까지 월드컵 예선 일정이 뺄박해 FA컵을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내년은 ‘홀수 팀레마’ 때문에 정규리그와 컵대회 일정을 짜기가 쉽지 않은 데다 FA컵 확대론까지 겹쳐 프로연맹이 어떤 묘안을 짜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

체육회 ‘KOC 분리’ 정면 반기

이연택 회장 “정부 간섭 말라...완전통합 추진”

대한체육회가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정부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겸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위원장(사진)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체육회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배제되어야 하며 주종관계는 안된다. 정부와 체육회는 원형인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연택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체육회와 KOC 분리를 추진 중인 정부의 시책을 거부하고 본격적으로 완전 통합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문화부는 체육회를 분리시켜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KOC는 스포츠외교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실무적인 검토를 마쳤지만 체육회는 최근 공청회와 이사회를 잇따라 열고 “대한올림픽체육회(KOC)”로 완전통합을 결의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이연택 회장은 “현재 체육회를 특수법인

으로 규정할 국민체육진흥법은 고쳐지고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한 뒤 “IOC는 민간 NGO 단체이고 각국 NOC도 사단법인 형태로 사법(私法)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이제는 선진국형 모델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방 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체육회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 특수법인이 됐고 올림픽이 끝난 뒤 재정비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해 현재의 처지가 됐다”고 설명한 그는 “이제는 모든 것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장은 체육회의 재정 자립을 주장하며 현 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 잉여금과 체육회 기금으로 설립됐는데 정작 체육회는 ‘하바지’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는 “공단 수익금이 기회재정부를 거쳐 국회를 돌아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체육선진화 연구방안’을 발표한 조재기 사무총장은 “체육회 사무직원이 100여명인데 문화부 체육국은 50여명의 직원과 사무관들이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 이제 체육만은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육회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문화부 관계자는 “이연택 회장께서 당초 약속과 달리 연임하기 위해 사전 포석을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한 뒤 “체육계 구조조정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연택 회장은 재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지만 “내 입장은 취임사 때 밝힌 대로 같 뿐이다.”고 밝혔으나 끝내 불출마에 대한 확답은 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내주 초 ‘이란전 명단’ 발표

박지성·이영표 2월 합류 예상

중동의 모랫바람을 뚫고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꾀하는 허정무호가 이란 원정 경기(2009년 2월11일)에 나설 축구대표팀 소집 명단을 다음 주 초 발표한다. 허정무 축구대표팀 감독은 18일 제주종합운동장에서 ‘2008 하나은행 FA컵 전국축구선수권대회’ 준결승 경기를 지켜본 뒤 “주말 FA컵 결승까지 관전하고 나서 대표팀 소집 명단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소집 명단은 국내와 위주로 23명이며 23일을 전후해 발표하기로 했다. 박지성(27·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이영표(31·보루시아 도르트문트) 등 해외파는 이란과 월드컵 최종예선 4차전 원정경기가 열린 2월11일 직전에 합류할 예정이다. 허정무 감독은 지난달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최종예선 2차전 4-1 대승에 이어

19년 만에 ‘무승 지크스’를 썼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최종예선 3차전 2-0 승리에 참가했던 태극전사 명단에서 큰 변화를 주지 않을 전망이다. 대표팀에 복귀해 건재를 과시한 골키퍼 이운재(수원)와 안정감 있는 수비를 보여준 강민수(전북), 조용형(제주), FC 서울의 미드필더 기성용, 이청용, 공격수로 기량을 인정받은 이근호(대구), 정성훈(부산)은 허정무 감독의 낙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오른쪽 발목 인대가 파열된 ‘프리킥 달인’ 김형범(전북)은 막판까지 몸 상태를 체크하고 나서 소집 대상에 포함할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표팀은 프로축구 14개 구단의 협조를 얻어 내년 1월10일 소집해 제주도에서 전지 훈련을 하고 같은 달 29일 UAE 두바이로 건너간다. 이어 이란과 비슷한 스타일의 중동팀과 두 차례 평가전을 갖고 이란에는 2월5일 들어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이란, 에콰도르에 0-1 패 4개국 국제축구대회

한국과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축구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맞붙는 이란 국가대표팀이 에콰도르와 맞대결에서 패했다. 18일(이하 한국시간) 아시아축구연맹(AFC)에 따르면 알리 다이에 감독이 이끄는 이란은 오만 무스카트에서 열린 에콰도르와 4개국 국제대회 첫 경기에서 후반 11분 피델 마르티네스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0-1로 패했다. 이란은 내년 2월11일 테헤란 아자디스타디움에서 한국과 남아공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B조 4차전을 치른다. 현재 한국이 2승1무(승점 7)로 선두에 올라 있고, 이란이 1승2무(승점 5)로 뒤를 쫓고 있다. 이란은 주축인 유럽파가 합류하지 않고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로 팀을 꾸려 이 대회에 나섰다. 이란은 개최국 오만에 1-3으로 패한 중국과 19일 밤 3-4위 결정전을 갖는다. /연합뉴스